



제5강 -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1. 새해를 맞이하는 영혼의 환호성

《즐거운 학문》 제4부는 모토가 하나 달려 있다. <성 야누아리우스>라는 제목의 시가 그것이다. 니체는 그 밑에 집필 시기까지 밝혀놓았다. “제노바 1882년 1월”(253쪽)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는 만 37살에 달한 니체가 직접 집필한 시임에 틀림이 없다. 건강이 회복되고 맞이한 1월이다. 어둠을 견뎌내고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며 《아침놀》을 완성했고, 그리고 지금은 즐거운 기운을 이어받아 새로운 책에 몰두할 기회를 선사받았다. 새해의 분위기가 압도한다. 신년이다. 힘이 넘친다.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자.

성 야누아리우스

불꽃의 창을 들고
내 영혼의 얼음을 깨뜨리는 그대
내 영혼은 환호성을 지르며
지고한 희망의 바다로 내달린다
더 밝고, 더 건강하게
사랑으로 충만한 운명 속에서 자유로이
그대의 기적을 내 영혼은 찬양하노라
더없이 아름다운 1월이여! (253쪽)



로마시대 동전에 새겨져 있는
야누스의 머리 (220년경)

야누스Janus는 두 개의 얼굴로 유명한 로마 신화의 인물이다. 라틴어로 는 이아누스Janua라고도 불린다. 그의 이름을 따서 1월을 독일어로 야누아르Januar라고 한다. 야누스는 영원한 법칙으로서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시작과 끝, 남자와 여자, 미래와 과거, 왼쪽과 오른쪽 등으로 말이다. 야누스는 모든 신적인 것들이 이미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중성의 양측면은 항상 그 각각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¹⁾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나쁘다. 한쪽이 나쁘면 똑같이 다른 쪽은 좋다. 이것이 야누스의 존재 양식이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연말연시와 같다. 망년회와 시무식이 이어지는 것과 같다.

1월! 질병은 극복되고 건강이 되돌아왔다. 정신은 맑아지고 생각은 샘솟는다. 힘이 느껴진다. “더 없이 아름다운 1월이여!” 찬양의 소리가 성스러운 교회 종소리처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1월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더 없이 아름다운 1월이여!” 이 말보다 더 나은 표현은 무엇일까? 이 말도 좋고 저

1) , [https://de.wikipedia.org/wiki/Janus_\(Mythologie\)](https://de.wikipedia.org/wiki/Janus_(Mythologie))

말도 좋다. 모든 것이 친구가 된 느낌이다. 하늘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느낌이다. 온 우주의 중심에 선 듯한 느낌이다.

1월! 한 해의 첫 번째 달. 이제 시작이다. 지난 것은 질병이 되어 멀어지고 있다. 앞날은 희망찬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내 영혼은 환호성을 지르며 / 지고한 희망의 바다로 내달린다.” 이 영혼을 깨운 것이 1월이다. “불꽃의 창을 들고 / 내 영혼의 얼음을 깨뜨리는 그대!” 그대가 1월이다. “우리는 지금도 중세의 빙하 속에서 살고 있다”(반시대Ⅲ, 427쪽)는 우울한 분위기는 지나갔다. 부정의 시대는 옛일이 되었다. 이제 긍정만이 삶을 채운다. ‘아~ 좋다~’라는 감탄사만이 쏟아진다. 입만 열면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서문에 있던 환호의 소리를 다시 들어보자. “이 책은 되돌아온 활력과 내일과 모래에 대해 새로 피어나는 믿음의 환호성이며, 미래와 임박한 모험, 다시 열린 바다, 그리고 다시 허락되고 다시 믿게 된 목표에 대해 갑작스레 솟아난 느낌과 예감이 소리 높이 외쳐대는 환호성 바로 그것이다.”(24쪽) 이제 니체의 환호성이 실감나게 들릴 것이라 확신한다.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아 헤매던 길고 긴 항해는 끝났다. 제노바에서 잠시 휴식하며 되찾은 영혼은 이제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내달리고자 한다. 시계바늘은 다시 영시를 넘어서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다. 환호성이 주변을 가득 채운다. 사물들이 열광하며 응원한다. 1월의 기적이다. 기적 같은 1월이다. 온갖 사물들이 합창을 부른다. “그대의 기적을 내 영혼은 찬양하노라.” 찬양가다. 《즐거운 학문》은 전체가 찬송가다.

새해에, -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아직 생각해야만 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Sum, ergo cogito: cogito, ergo sum, 오늘은 누구나 자신의 소망과 가장 소중한 생각을 감히 말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 해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 -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Amor fati!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려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려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255쪽)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잠언을 읽도록 하자. 반복하면서 새것을 준비하자. 그것이 훈련의 가치니까. 훈련은 늘 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에서 빛을 발한다. 같은 동작 같은 자세 같은 움직임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엔텔레히Entelechie에 도달할 것이다.²⁾ 완벽함, 완전성, 즉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삶 자체일 뿐이다. 살아 있는 것이 목적이다. 삶은 사람에 의해 실현된다. 사람은 삶 속에서 가치를 확인할 뿐이다. 완벽함과 완전성이 있다면 그것은 삶 자체인 것이다. 사람 없는 삶은 모순이다. 삶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이념이다.

살아 있어서 고맙다. 살아 있어서 좋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살아 있는 것만이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다. 삶만이 행복의 증거다. 허무주의 철학은 행복을 위한 철학이

2) , 이동용: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동녘 2015, 206쪽.

다. 허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을 위한 비결일 뿐이다. 행복이 없다면 허무도 없다. 행복이 있기에 허무가 가치 있는 것이다. 행복이 있기에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의 다른 얼굴은 행복이다.

반복! 니체는 이 “새해에” 반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나는 아직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아직 생각해야만 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깨가 들썩 거린다. 마치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랩을 듣고 있는 듯하다. 따라 하기조차 힘들다.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읊어대는 실력이 남다르다. 그 리듬을 찾지 못하면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다. 리듬이 입에 붙을 때까지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리듬이 느껴질 때 마침내 음악의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마치 신세계처럼. 그 세계로 이끌어줄 바다는 “희망의 바다”(253쪽)로 불릴 만하다.

‘살아 있다’와 ‘생각한다’가 돌고 돈다. 돌고 돌다 살아 있다가 존재한다고 이름을 달리 한다. 바뀐 것은 이름뿐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삶은 그대로다. 생각이 살아 있다. 생각이 삶을 증명한다. 삶이 생각의 증거다. 생각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삶은 생각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다. 둘은 하나다. 떨어 수 없는 관계다. 그 삶이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독자는 존재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도대체 존재가 무엇인가?’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질문을 던진다. 무책임하다. 그런 질문은 현답을 듣고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의 인식의 그물은 그렇게 험령하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말에 얽매일 때 정신은 혼란만 거듭한다. 현상에 얽매일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번역체에 불만을 토로하는 독자 또한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할 때 다름이 눈에 거슬리게 된다. 다름이 틀림으로 도드라지게 보인다. 가끔은 오역이 좋은 지혜를 전달하기도 한다. ‘아하!’ 효과는 바로 이런 데서 발견된다. 오해의 뜻이 보일 때 이해는 더욱 빛나는 성과가 된다. 그것이 오역의 가치다. 그것이 실수의 가치다. 그것이 고통의 역할이다. 구덩이에 빠져서도 하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본질은 언제나 다양한 현상에 의해 흐려지고 만다. “이성? - 그것은 어리석은 것”(10쪽)에 불과하다. 이성? 그것은 비치는 빛만을 되돌려주는 거울과 같다. 이성? 그것은 빛의 원천인 해가 아니라 그 빛을 되돌려줄 수만 있는 달과 같다. 달은 매일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해맞이와 달맞이의 차이점은 점점 밝아옴과 점점 어두워짐에 있다. 해는 뜨면 뜰수록 눈이 부시고 달은 뜨면 뜰수록 또렷해진다. 이성의 힘은 다른 모든 것이 어두워져야 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성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나서야 만족을 한다. 잔인한 근성을 가진 존재다. 이성은 늘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 배타적이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빠지게 하는 것이다. 허영심의 주체다.

이성! 그것은 ‘라치오^{Ratio}’³⁾라 했다. 계산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계산된 내용물이 아니라 계산능력 자체임을 잊지 말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도 이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이성은 여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즉 이성은 받아들인 다음에만 줄 수 있을 뿐이

3) <https://de.wikipedia.org/wiki/Ratio>; “Ratio (lat. ‘Rechnung’, ‘Berechnung’; ‘Erwägung’, ‘Vernunft’), 적으로 라치오는 이성으로 번역된다. 라치오는 두 개의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라치오날리테트^{Rationalität}, 즉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다. 이성이 그 자체로 홀로 갖고 있는 것은 내용이 없는 조작의 형식뿐이다.”⁴⁾ 이성적 행동은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정답처럼 예상이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자. 너무 이성애 얽매어 너그러움을 상실한 ‘웅졸한 인물’⁵⁾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성적인 사람은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혹은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지 그 정답에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자는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성적인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사람의 한계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바보나 다름이 없다.

너무 멀리 갔다. 다시 텍스트에 집중하자. 지금 했던 말들은 앞으로 산발적으로 자주 언급될 것이다. 그때마다 생각의 퍼즐을 맞춰가면 될 것이다. 다시 1월이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새로운 해가 뜨는 날이다. 어제 또 댔던 바로 그 험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해라고 말을 한다. 단정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것이다. 자기만 안다는 듯한 그런 착각의 유혹은 대단하다. 이성은 배타적이라 했다. 똑같은 해를 새로운 해로 인식할 정도로 배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성의 힘이다.

때로는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도 전혀 새로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것이 생각의 힘이다. 인간을 일컬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⁶⁾가 그런 의미다. 이성적 존재라는 뜻이다. 추상적 사고라는 운영체계를 갖춘 존재라는 뜻이다. 사물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로 머릿속에 채워진다. 그러면서 기억이라는 쇠사슬에 함께 엮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낼 정도로 위대하다. 생각하는 힘보다 위대한 무기는 없다. 생각의 힘은 사자의 이빨보다 강하고 호랑이의 발톱보다 날카롭다.

기억의 산물들은 모두가 의미와 해석이라는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냐에 따라 기억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은 기억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해석이 달라지면서 의미도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 의미는 늘 바뀔 수 있는 불안한 것이다. 평정을 위해 생각하고 권태를 막기 위해 생각한다. 생각이 사람을 잡기도 하고 생각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 생각이 만들어낸 귀신에 정신줄을 놓는 사람도 있다. 생각이 만들어낸 동아줄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도 한다. 생각을 잘못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 한 번 잘 하면 없던 길도 보인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곳에서 가능성까지 창출해낼 수 있다.

1월 1일. 새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날. 늘 이런 날이 다가오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소망을 품는다. 수첩을 바꾸고 일기장을 바꾼다. 새로운 페이지에 무슨 글자를 처음 적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얀 도화지에 남기는 첫 번째 흔적은 우연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필연이 되고 만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꿰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문법에 맞게 끝맺음을 해야 하는 것이 이성적 인간의 의무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불리지 못한다.

4)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115쪽.

5)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신앙처럼 믿었던 칸트에 대해 “그는 도덕적인 웅졸함이 생기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책, 130쪽)는 말을 했다.

6) <https://de.wikipedia.org/wiki/Mensch>

소망. “오늘은 누구나 자신의 소망과 가장 소중한 생각을 감히 말한다.” 감히! 이성으로 숨기고 살았던 인간이 이날만큼은 솔직해지고자 한다. 1월 1일의 힘이다. 시작의 힘이다. 시작이라는 개념이 전하는 어감은 이런 것에서 드러난다. 이날이 되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된다.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 -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에 대해 숨김이 없어진다. 마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앞에서 ‘피의 서약’⁷⁾을 하듯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도 당당해지는 순간이다. 자신감으로 넘치는 순간이다.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희망이 절망을 압도한다. 확신이 불안이 이긴다. 시작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이미 힘의 느낌으로 충만하다. 중생^{重生}, 즉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정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지금부터다!’라고 외치는 함성이 가지는 의미는 승자만의 전유물이다.

소망. 그것은 훗날 자기 인생의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이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삶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가뭄을 이겨내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기도 할 것이고, 바람에 견디지 못해 채 익지도 않은 채 땅에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익었지만 떨어지지 못해 가지에 매달린 채 썩어들어 가기도 할 것이고, 벌레들의 입질에 구멍이 송송 뚫리기도 할 것이고, 새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지고 파괴되는 꼴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다. 소심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 이왕 가져야 할 것이 생각이라면 당당할 필요가 있다. 소망! 적어도 새해만이라도 감히 입에 담아보자. “자신의 소망과 가장 소중한 생각”이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을 갖자. 그 씨앗이 삶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 믿어보자.

그리고 새해에 니체는 하나의 다짐을 한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즉 “말하고자 한다”에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말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배우고자 했던가? 그것은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이다. 그러면 다시 묻자. 무엇이 필연적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극복하고 극복하다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면 그때가 끝이다.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의지가 직면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한발자국도 내디딜 힘이 없을 때 운명이라는 것이 보인다. 운명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운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니체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즉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운명에 대한 인식은 마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고아가 마침내 생전 처음 만나는 부모 앞에서 느끼는 기분이랄까. 부정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랄까. 반평생을 잊고 살다가 마침내 찾은 자기 자신이랄까. 그런 것을 두고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운명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순수한 사랑이 요구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운명애뿐이다. 운명은 사랑의 대상이다. 운명은 절대로 증오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하고 부모를 탓해서도 안 되고, ‘왜 너는 이 모양이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도 안 된다. 운명과 직면할 때 눈물이 쏟아지겠지만 그 눈물로 죽음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절망감으로 오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7) “ 종이 쪽지라도 좋아요. 피 한 방울로 서명만 하면 되니까요.”(: 파우스트/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동서문화사 2/2009, 88쪽) 악마의 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동용: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경쟁윤리, in: 인문과학논총, 제36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145쪽)이 성립되기 위해 한 방울의 피에 의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허무주의의 정언명법이다. 모든 것에 허무함을 느껴도 운명만은 안 된다. 운명은 필연적인 것이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이 배움에 동참하는 것이 허무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필연적인 것은 아름답다!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바꿀 수 없다면 운명이다. 그리고 모든 운명은 아름답다! 대머리도 아름답고 숫다리도 아름답다. 흰머리도 아름답고 주름살도 아름답다. 처진 살도 아름답고 흐려진 눈망울도 아름답다.

인생은 필연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늙어간다. 그 늙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기란 너무도 힘들다. 이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성은 늘 젊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좋게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허무하다. 허무한 것은 허무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삶을 사랑해야 한다. 아모르 파티! 수도 없이 외쳐대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과제임을 이제 알게 된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허무주의가 선언하는 사랑고백 속에는 운명뿐이다. ‘운명이 초라하고 추해보이면 어쩌나’하고 겁먹지 말자. 그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그토록 전쟁, 투쟁, 싸움을 종용했던 허무주의 철학자가 너무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비난하지 않으려다”고 다짐하자. 운명은 싸움을 걸지 않으면 된다.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세월은 막을 수 없다.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도 막으면 될 것 같지만 그 댐이 무너지면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만다. 성형수술로 청춘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질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댐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늙음은 인생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쓸데없는 것에 정열을 쏟지 말자. 시간낭비하지 말자. 아모르 파티! 그것만이 비결이다. 상술과 유행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말자. 현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무엇이 필요하다는 발상도 버리자. 없어도 된다. 삶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돋보일 수는 있어도 그 소유로 인해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운명을 알면 타인과의 관계도 원활해진다. 왜냐하면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려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난하는 자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니 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싸우지 않기 위해 그저 돌아서는 게 상책이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가끔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던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 등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도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옳은 싸움이 아니다. 성스러운 싸움이 아니다. 허무주의가 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부정에 부정으로 맞서지만 그 행동은 돌아섬이다. 맞불 작전이 아니다. 무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면서 운명을 챙기는 것이다.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긍정하는 자! 긍정하는 사람! 그것이 니체가 지향하는 이상형이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이다. 모든 사물을 친구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인간이다. “시인과 현자에게는 만물이 친구”(33쪽)이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경작지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용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썩히지 않고, 모든 일과 사건과 인간에서 바람직한 거름, 비 혹은 햇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인간적II, 191쪽) 시작이 가진 두 개의 얼굴 중 어떤 얼굴을 볼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 달렸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짓은 삼가야 한다. 운명을 거슬러 살다가 스스로 슈퍼맨으로 착각하여 망토를 두르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짓은 없어야 한다.

2. 죽음이라는 생철학의 최대 숙제

죽음은 문제 상황이다. 죽음은 극복하지 못할 한계 상황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죽음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고 구원이 요구된다. 죽음 때문에 삶이 초라해진다. 모든 삶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죽음은 그 의미를 앗아갈 뿐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악마의 모습을 띄게 된다. 악마가 죽음이고 죽음이 악마다. 이런 논리가 삶을 살아가는 입장을 대변한다.

삶의 반대편에 죽음이 있다. 문제다. 풀어야 할 숙제다. 빛과 그림자. 긍정과 부정.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까마득하다. 수수께끼 같기만 하다. 무의미한 도전 같기도 하다. 꼭 풀어야 할까? 회의적인 생각이 밀물처럼 들이닥친다. 푼다고 풀릴 것 같지가 않다. 한계는 넘을 수 없다.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다. 죽어야 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눈물을 쏟게 한다. 죽고 싶지 않다고 오열을 하고 싶다. 삶이 너무 좋다고 생의 예찬을 외쳐대고 싶다. 그런데 발목에는 죽음이라는 쇠사슬이 묶여 있다. 모든 희망가는 순식간에 심연으로 추락하고 만다.

죽음의 그림자가 크면 클수록 삶은 위축되고 만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신의 영역은 말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신앙으로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단단한 쇠덩어리라도 결국에는 녹이 슬 것이고 수억만 년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름다운 경치도 세월 따라 변해간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허무주의의 도래를 감당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죽어야 할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염원한다.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는 영생을 꿈꾼다. 이성이 만들어내는 신세계는 거의 완벽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게 있으랴. 인류가 만들어낸 신의 형상은 거의 허점이 없다.

살아서 그토록 영생을 찬양하다가도 진정 죽어가는 인생 앞에 서면 할 말을 잊고 만다.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하는 것조차 위로가 되지 못한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서도 속아주는 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오히려 쑥스러움만이 있을 뿐이다. 죽어가는 자와 산 자는 서로 엄청난 차이 속에 존재할 뿐이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있을 뿐이다. 팔 다리가 없거나 다른 곳에 달려 있는 기형적인 사람들 항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쑥스럽다. 그런 말은 그들의 삶을 조롱하는 꼴이 되고 만다.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성 은 늘 다른 것을 보여준다. 늘 다른 더 좋은 것을 알게 한다. 아는 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기할까? 그것이 허무주의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다시 한 문장을 읽자. 그리고 외우자.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255쪽) 니체의 다짐이었다.

삶은 죽음으로 마감한다. 필연적이다. 이것은 진리다. 믿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싫어서 잊고 살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느닷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덮쳐와 삼시간에 일상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고 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조차도 죽음이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다. 방안에 불을 켜놓고 자는 것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 무의식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삶은 죽음을 향해 다가서고 있을 뿐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허무주의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 - 골목길들, 옥구들, 목소리들이 빚어내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우울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다. 얼마나 많은 향락과 초조와 갈망이, 얼마나 많은 목마른 삶과 인생의 도취가 매순간 생겨나고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살아 있는 사람들, 삶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제 곧 정적이 찾아올 것이다. 각자의 뒤에는 그의 그림자, 그의 어두운 동반자가 서 있다! 언제나 그것은 이민자를 실은 배가 출항하기 전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다. 사람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급박하게 다가오고, 대양과 그의 침묵이 참을성 없이 이 모든 소란의 뒤편에서 자신의 먹이를 그리도 탐욕스럽고, 그리고 확고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극히 사소한 것이며, 가까운 미래가 전부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이 성급함, 이 비명, 이 마비 상태, 이 자기기만이 생겨난다! 누구나 이 미래에서 첫째가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러나 죽음과 죽음의 정적만이 이 미래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이 유일한 확실성과 공통성이 인간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고, 조금도 자신을 죽음의 형제로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나는 행복을 느낀다! 나는 인간들에게 삶에 대한 생각이 수백 배 더 생각할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 (257쪽 이후)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 주고 싶다.’ 그래도 상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죽어갈 뿐이다. 잠시 몸을 쉬고 사랑이라는 말로 정신을 합쳐준다고 믿으며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죽음과 맞닥뜨려야 한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만이 확실하다. 죽음만이 보편적인 확실함이다. 유일한 확실성과 공통성은 죽음에서 고개를 치켜든다. 이를 어찌랴. 삶이 갑자기 허무해진다. 허무의 그림자가 삶 전체를 드리우고 만다.

그렇다고 해도 삶이 죽음으로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쉽다면 철학도 필요 없을 것이다. 쉽게 죽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죽음을 선택하고 말 것이다. 이 힘든 삶을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죽음은 살아 있는 동안 늘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안 잡히는 그곳에서 사람을 약 올린다. 죽음이 인생을 가지고 노는 듯하다. 인생은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다. 착각이 삶을 유지하는 힘인 것 같다.

누구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간다. 그래도 죽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한숨이 가슴을 채워도 그 한숨으로 삶을 끝낼 수는 없다. 여린 숨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인생의 물 굴이다. 인생이 가져다 준 짐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 살려고 아등바등이다. 살려고 발악을 한다. 무거운 짐이 화살이 되어 심장에 꽂혀 있다. 마지막 박동을 기다리는 생명 같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만큼 가련한 인생이 없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무슨 일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한마디로 어쩔 도리가 없다.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것만큼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게 또 있을까. 이길 수 없는 적 앞에 섰을 때 전사는 어떤 기분으로 싸움에 임할까? 하계의 강물 슈티스Styx에 몸이 담겨짐으로써 상처를 입지 않게 된 아킬레스Achilles 앞에 선 헥토르Hektor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전사는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할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 운명이다. 잔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인류는 지하세계를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곳은 가기 싫은 곳이다. 그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다. 눈을 가진 존재에게 어둠만큼 끔찍한 세상은 없다. 이런 상상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것과의 싸움이 “새로운 투쟁”(183쪽)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이라는 벽에 드리운 그림자이다. 이 그림자와 싸워 이겨야 한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이길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이길 수 있다. 불사신이라 여겨졌던 아킬레스도 약점이 있었다. 죽음에도 약점이 있다. 그것은 삶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도 있는 것이다. 삶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 허무주의 철학이 도전하는 가치 체계이다. 허무의 도래를 용납하는 이유다.

삶은 살아서 가치를 얻는다. 삶은 힘들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죽어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 헥토르처럼 싸움에 임해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삶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삶이 예술이 된다. 삶은 돌아설 수 없다. 싸움은 운명이다. 삶을 위한 싸움은 예술이 되어야 한다. 죽음에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싸워야 한다. 그런 싸움이 아름다운 것이다. 대충 싸워서도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삶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노래부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그대들의 오르페우스를 찾도록 하라!”(263쪽 이후) 오르페우스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골목길들, 욕구들, 목소리들이 빚어내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우울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다.” 요묘하다. ‘우울한 행복’이라. 허무주의의 색깔이다. 행복하지만 우울함이 압도적인 색깔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행복하기는 한데 눈물이 난다. 우울해서 눈물이 난다. 슬픔을 감출 길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이런 감정일 것이다. 헥토르의 인생을 읽을 때마다 덮쳐오는 우울함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피할 수 없는 우울함이다. 우울한 살인의 원칙이다.

‘골목길들’을 걸어보자. 큰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성공이나 승리감이 넘치는 환한 대로가 아니다. 높은 아파트 사이로 난 잘 정비된 그런 길이 아니다. 달동네 꽃동네 등으로 불리는 산골 동네의 골목길들을 걸어보자. 거기서 전해지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욕구들’도 느껴보자. ‘소비사회’⁸⁾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껴보자.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보자. 갖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보자. 결핍이나 결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자. 집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목소리들’도 들어보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보자. 낯선 집에 심방을 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소리들을 들어보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들어보자. 삶의 현상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우울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니체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걸어보고 느껴보고 들어보자.

8) <https://de.wikipedia.org/wiki/Konsumgesellschaft>;
만족시켜준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살아 있어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 삶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얼마나 많은 향락과 초조와 갈망이, 얼마나 많은 목마른 삶과 인생의 도취가 매순간 생겨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매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일상을 견디기 위해 향락을 즐기고 도취에 빠진다. 내일을 위해 술잔을 비운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함성을 질러댄다. 취기가 쏟아내는 함성에 기죽을 사람 없다. 그런데도 외쳐댄다. 용기백배해서 고통으로 타인의 귀를 막는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도 하지 못하면서. 현대인의 나약한 모습이다. 성공하고자 발악하는 사람들의 가련한 모습이다. 부족한 것이 많아 늘 초조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 그런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런 것이 삶의 증거라고 확신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살아 있는 사람들, 삶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제 곧 정적이 찾아올 것이다.” 정적! 소름끼치는 정적이다.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는 악몽과도 같다. 도마 위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생선처럼 그렇게 인생은 마감할 것이다. 무엇이 삶의 혼란을 막아줄 것인가? 무엇이 삶의 소란을 잠재워줄 것인가? 그것은 죽음뿐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쟁만 일삼아 왔던 사람들. 그들은 견디지 못해 떠나는 사람들처럼 우울한 행복만을 느낄 뿐이다. 마치 “이민자를 실은 배가 출항하기 전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다.” 이민자들. 현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현실을 꿈꾸며 떠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극히 사소한 것이며, 가까운 미래가 전부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이 성급함, 이 비명, 이 마비 상태, 이 자기기만이 생겨난다!” 떠나면서도 서로 짓밟고 서로가 앞서려고 한다. “누구나 이 미래에서 첫째가는 사람이 되려 한다.” 미래가 전부라고 말하며 잔인함은 극에 달한다.

떠나는 자는 뵈는 게 없다. 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라도 짓밟을 태세다. 살고자 떠나는 자는 그렇다. 이민자들의 마음은 단단하다. 패배가 가져다준 마음은 승리만을 갈구한다. 우울을 승리로 바꾸고자 한다. 우울한 감정을 승리감으로 바꿔놓고자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떠남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무섭다. 패배가 사람을 바꿔놓는다. 잔인하게 만들어 놓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패배에 익숙한 사람만큼 경계해야 할 사람이 또 없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패배에 익숙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굶주린 사람은 허무주의의 식탁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앉지 못한다. 떠남이 이런 이민자의 것과 같다면 그것은 진정한 떠남이 아니다. 허무주의는 다른 떠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진정한 떠남이 아닌 떠남은 어떤 떠남일까? 그것은 미래를 믿고 떠나는 것이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놓지 않고 떠나는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작정을 하고 떠난다. 미래를 믿고 떠난다. 잘못된 떠남이다. 허무주의적 떠남이 아니다. 그러나 이 미래조차도 불확실할 뿐이다. 삶 속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죽음과 죽음의 정적만이 이 미래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남보다 앞서려고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니 그들의 생각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늘 낯선 것으로 존재할 뿐이다. 죽음이라는 “이 유일한 확실성과 공통성이 인간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고, 조금도 자신을 죽음의 형제로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모두가 영원을 꿈꾸고 모두가 영생하리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니체는 우울한 행복을 느낀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나는 행복을 느낀다!”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슬픔이 북받쳐 눈물을 쏟아내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은 숨길 수가 없다. 살아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간들에게 삶에 대한 생각이 수백 배 더 생각할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 삶에 대한 생각!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지 또 얼마나 슬픈 생각인지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과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다. 삶은 죽음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싸운다고 이길 수도 없다. 끝까지 도망쳐도 결국에는 잡히고 만다. 삶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기정된 사실이다. 확실하다. 온갖 치열한 삶이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산 인생이라 해도 결국에는 죽음의 손아귀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삶 이외의 모든 것에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앞서 건너 뛴 시가 하나 생각나 이 자리에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한다. 여기서 허무주의 철학은 따기 힘든 장미꽃으로 비유되고 있다.

나의 장미

그렇다! 나의 행복 -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모든 행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나의 장미를 따고 싶은가?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에
몸을 숙여 숨어야 하고
때로는 손가락이 너희를 핏흔 하지!

나의 행복은 희롱을 즐기니까!
나의 행복은 간계를 즐기니까!
그대들은 나의 장미를 따고 싶은가? (40쪽)

니체는 두 번이나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의심쩍어 묻고 또 묻는 것이다. ‘정말 허무주의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가?’하고. ‘진정 진실을 알고 싶은가?’하고. ‘그대는 진정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하고. 과거에 니체는 자신의 책을 “위험한 책”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질병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인간적Ⅱ, 52쪽) 돕고자 하기 때문이다. 삶을 가르쳐주는 허무주의 철학은 정말 잔인한 훈련을 거듭하게 한다. 병신을 보고 병신이라고 말하는 잔인함은 치를 떨게 한다. 약자를 보고 약자라고 말하는 직언 앞에 당혹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는 시도,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원하는 것이다. 니체는 분명 행복의 전도사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 악한 역할을 선택한다. 칭찬보다는 야단을 선호한다. 위로하기보다는 혼내주기를 더 좋아한다. 용서보다는 처벌이 앞선다. 장미를 따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장미 즐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휘청거리는데 그 즐기는 그 어떤 것보다 질기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가시까지 있다. 자신을 꺾으려는

그 손에 가시의 찔림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불 속에 던져진 생나무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

허무주의 철학은 엄청난 고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고통은 행복을 기약할 뿐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니체의 희망사항이다. “모든 행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니체의 간절한 소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니체가 꿈꾸는 이상향이다. 삶은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에” 뛰어들 줄 알아야 한다. 끝없는 대양을 향해 항해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뜨거운 사막을 향해 긴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행복이라는 장미를 따고 싶으면 그런 지옥훈련을 견뎌내야 한다. 삶이 지옥이라 했다. 생지옥이라 했다. 거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모든 허무주의적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263쪽) 여기에 장미가 피어 있다.

죽음과 관련한 니체의 생각이 무엇이지 좀더 깊게 알기 위해 과거의 책, 특히 《반시대적 고찰》 속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

인류와 개인을 향해 외친 ‘죽음을 기억하라 Memento mori’는 과거에는 항상 고통스러운 가시였고 중세적 지식과 양심의 정점이었다. 근대가 그를 향해 외친 소리, ‘삶을 기억하라 Memento vivere’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고 온 목청을 다해 외친 소리가 아니며 부정직한 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직 확고하게 메멘토 모리 위에 앉아 있고 이 사실을 그들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욕구를 통해 내비친다. 지식은 그 강력한 날개짓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야외로 날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반시대II, 354쪽)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중세의 정언명법이었다. ‘죽을 테니까 믿으라’고 가르쳤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쳤다. 교회는 권력유지를 위해 인간의 약점인 죽음을 이용했다. 르네상스인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메멘토 비베레를 외쳐댔다. 삶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음성은 “아직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고 온 목청을 다해 외친 소리가 아니며 부정직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르네상스의 한계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삶을 외쳐댔다는 데 있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늘 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니체는 근대를 종식시키고 현대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현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에서조차 한계를 느끼고 현대 이후를 예견하기도 한다. 그에게는 미래가 보였다. 허무주의 철학은 예언적인 내용으로 충만해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충만해 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기회를 인식하고 그 기회를 잡도록 해주기 위해 니체는 열심히 철학의 길을 걷고 있다. 치열하게 집필에 매진한다. 미래에 깨어날 알을 낳듯이 그렇게 희망에 찬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3. 미래를 준비하는 고귀한 전사

준비하라! 만반의 준비를 하라! 허무주의 철학은 늘 준비를 당부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의 가치는 오로지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인다. 잠시도 태만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허무함을 받아들이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먼저 비워놓지 않으

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래의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한 큰 마음으로 그리고 가능한 텅 빈 마음으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진리다. 모든 것은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일 뿐이다. 또 다시 성경구절을 외워보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에레미야애가5:9)를.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은 그런 각오와 실천에 의해 주어질 뿐이다. 삶에 무기력한 자들은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없다. 니체는 삶을 예술작품처럼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예술이다!’하고 감탄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함부로 망치질 하여 스스로 작품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설픈 예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하는 사람, - 용기를 다시 영예로 존중하게 될 더 남성적이고, 더 전사^{戰士}적인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징후를 나는 환영한다! -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는, 영웅주의를 인식하고, 이 사상과 그 결과를 위해 전쟁을 벌일, 보다 고귀한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러한 시대가 필요로 하게 될 힘을 결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용기를 지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 왜냐하면 - 내 말을 믿으라! - 실존의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결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하게 살지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가에 세우라! 그대들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내보내라! 그대와 동류의 인간들, 그리고 그대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살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들이여, 지배자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약탈자와 정복자가 되라! 겁 많은 사슴들처럼 숲 속에서 숨어 살아가야 하는 지겨운 시대는 곧 지나갈 것이다! 마침내 인식은 자신의 영예에 걸맞은 것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 인식은 지배하고 소유하기를 원한다, 인식과 더불어 그대들도 그것을 원한다, (261 쪽 이후)

허무주의 철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이다. 이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독자는 미래를 위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싸우기 위해 용기 필요함을 인식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용기! 그 중에서도 진정한 용기는 죽음을 각오한 경우에만 요구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저 만용일 뿐이다. 죽는 줄 모르고 달려드는 자는 용감한 자가 아니다. 니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기! 허무주의 철학은 용기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철학이다. “용기를 다시 영예로 존중하게 될 더 남성적이고, 더 전사적인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징후를 나는 환영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평화를 예견하는 무책임보다는 전쟁을 예고하는 쓴소리를 담당한다. “전쟁을 벌일, 보다 고귀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는 준비된 자에게 올 것이다. 변화를 꾀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에게 실현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용기를 지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한 두 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니체는 “내 말을 믿으라!”고 외쳐댄다. 미래를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신들에게 그는 허무주의 철학의 진가를 보여주려 한다. “실존의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결”을 전수해주려 한다. 삶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려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은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⁹⁾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

는 실정이다. 인문학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극에 달한 듯하다. 특히 철학은 그저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고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잠언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

철학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 만약 너희가 지금까지 삶의 최고 가치를 믿어왔지만 이제는 실망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도대체 그것을 가장 험값에 팔아치워야만 한다는 말인가? (인간적II, 23쪽)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경제도 좋고 발전도 좋다. 돈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보장 안 된다고 무시하는 학문에 귀를 기울이자. 잠시라도 멈출 수 있게 핸드폰보다 책을 들려주자. 조금이라도 실존적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노트와 펜을 들려주자. 시대의 이슈는 돈이다. 현대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일자리다. 현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이제는 현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너머를 넘볼 때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실존의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결"을. 이 말은 니체는 "내 말을 믿으라!"라는 말 뒤에 배치시켜놓았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삶에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하게 살지어다!"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변화는 위기를 극복해야 실현된다. 변화는 위기를 넘어서야만 가능해진다. 극복은 삶은 감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삶다는 느낌이 없다면 극복할 이유도 없다. 버릴 가치를 찾지 못하면 버리지 못한다.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떠나지 못한다. "위험하게 살지어다!" 허무주의 철학의 지상명령이다. 자기 인생에 위험을 허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실존에 위기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가에 세우라!" 명령은 계속된다. 극한으로 몰고 가는 명령들이다. 고대 폼페이Pompei라는 도시를 삼시간에 휩쓸어버린 베수비오Vesuvio 산! 그 가까이에 다가서라는 것이다. 위험에 다가서라는 것이다. 관습과 인습의 도시는 화산재 속에 묻힐 가치가 있다. "그대들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내보내라!" 허무주의가 바라보는 미지의 바다는 희망의 바다다. "내 영혼은 환호성을 지르며 / 지고한 희망의 바다로 내달린다." (253쪽) 극한 상황에 들어서야 한계가 드러나고, 그 한계가 보여야 결국에는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살라!" 가장 좋은 말 같다. 니체가 누누이 말하는 싸움이다. 그가 주장하는 전쟁의 내용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것을 위해 허무주의 철학은 온갖 다양한 문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본질은 오로지 자기극복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에는 초인이 될 때까지 극복에 극복을 거듭하라는 것이다. 넘어서자. 넘어서야 초인이다.

넘어설 수 있는 자는 자신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 -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 (262쪽) 하지만 그들이 샘물이 되어 흘러간 자리에 수많은 다른 지류들이 합쳐지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그 강물은 "신에게로 흘러나가지 않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오르리라." (263쪽)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자.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자. 바다가 앞에 있어도 주눅 들지 말자. "승선하라!" (265쪽)는 니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의다! 새로운 해결책이다! 새로운 철학자다! 도덕의 지구도 둥글

9) , 2016년 1월 6일, 1면.

다! 도덕의 지구도 양 극점을 가지고 있다! 양 극점도 실존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발견해야 할 하나의 세계가 있다!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승선하라, 철학자들이여! (265 쪽)

허무주의 철학은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배에 선원을 태우고자 한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고자 한다. 도덕의 지구에서 신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새로운 도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허무주의가 발견해야 할 새로운 세계는 “하나 이상의 세계”이다. 두 개? 세 개?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다.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누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라. 틀린 말이 아니다. 바로 자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4. 모순을 받아들이는 고통

허무주의 철학은 극복의 철학이다. 극복의 비결을 가르치는 철학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극복에 있다. 극복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시켜주는 철학,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 철학이다. 매달리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해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거나 무관심에 빠져 있는 정신에 채찍을 들이대기도 한다.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비우라고 소리치고 또 비워진 것에 대해서는 채우라고 소리친다. 모든 경우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가 인식되면 그 이유를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모순될 수 있다는 것, -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고도의 문화적 징표라는 사실을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고귀한 인간이라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신의 불의에 대한 지표를 구하기 위해 자기모순을 원하고 그것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모순될 수 있으려면 익숙한 것, 전승된 것, 신성시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두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지닌 본래적인 위대함, 새로움, 놀라움이며, 해방된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 (274쪽 이후)

이 잠언을 한 줄로 줄이라면 이렇다.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는가? 앞의 두 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이다. 첫째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고도의 문화적 징표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첫 번째 사실조차 납득을 하지 못하는 정신이 있을 것이다.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이 있다는 얘기다. 자기애로 가득 차서 모순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신념으로 무장한 정신이다. 이런 정신은 변화를 거부한다. 변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은 대화에도 미숙함을 보인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미숙함을 능숙함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뿐이다. 모든 상황에서 단정과 결정이 전제된 대화를 일삼는 정신 앞에서 아무도 제동을 걸어주지 않을 뿐이다. 제동을 걸어봐야 변하지 않을 정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했다.

둘째는 “고귀한 인간이라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신의 불의에 대한 지표를 구하기 위해 자기모순을 원하고 그것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고귀한 인간이라고 칭하는 인간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모순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다. 이 두 번째도 만만치 않

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기모순을 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신의 불의를 의식하기 위해 자기모순을 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존재할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을 정반대의 의견으로 혹독하게 훈련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니체는 이 두 가지 정도만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의 이런 판단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모순에 대한 생각을 점층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간다. 첫째는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둘째는 모순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첫째는 수동적이었고, 둘째는 적극적이었다. 이제 세 번째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모순될 수 있으려면 익숙한 것, 전승된 것, 신성시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니체는 이 세 번째가 앞의 두 가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적대감을 느끼고 있어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모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오를 할 수 있다면 사랑의 대상을 마음 안에서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가 지닌 본래적인 위대함, 새로움, 놀라움이며, 해방된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다.” ‘요건 물랐지?’하며 니체는 마지막으로 카운터펀치 한 방을 날린다.

독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의 것 두 가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읽어내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밑밥을 던져놓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비교급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문맥은 쉽게 풀릴 것이다. 어쨌든 말에 휘둘러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자. 니체가 하고자 한 말을 새겨들자.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정신, 그런 정신은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자.

극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모순을 발견해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극복해내기 위해 곱씹어보아야 한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을 때 그것을 빨리 적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고 만다. 뭔가 좋은 생각을 했었다는 기억만이 남아 사람을 안타깝게 만든다. 뭔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아쉬움만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만큼 탄식의 소리가 클 때가 따로 없다.

탄식, - 나는 길에서 이 통찰을 재빨리 낚아채, 그것이 다시 날아 가버리지 않도록, 가장 근접한 서투른 말로 서둘러 그것을 붙잡아 두었다. 하지만 이 통찰은 이 말의 건조함으로 인해 말라죽은 채, 그 말 속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다. - 그리하여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이 새를 잡았을 때 어떻게 그토록 행복을 느꼈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275쪽)

살면서 탄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아쉬울 것이다. 통찰은 쉽게 오지 않는다. 인식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모든 것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토록 소중한 통찰이 왔는데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마치 새처럼 날아갈 뿐이다. 다잡은 새를 놓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가끔은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 때 통찰이 찾아오기도 한다. 늘 필기해두는 좋은 버릇을 만들어놓고도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해 통찰을 놓칠 때도 있다. 마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태복음 26:41)하는 성경구절처럼 몸이 따라주지 못해 놓칠 때도 있다.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정말 짜증난다. 이 통찰을 잡아두기

위해 또 다시 책상 앞에 자신을 앉혀야 할 때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일 하지 뭐~'하며 무책임하게 하루를 마감한다. 그리고 새날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 통찰인지조차 까맣게 까먹고 만다. 그나마 까먹었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중요한 통찰을 했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을 때는 탄식으로 하루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 속의 지혜, - 고통도 쾌락만큼이나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 고통도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족 보존을 위한 최고의 능력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통은 오래전에 소멸 되었을 것이다, 고통이 아픔을 준다는 것이 고통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고통에서 나는 "똥을 내려라!"라는 선장의 명령을 듣는다, 대담한 선원인 인간은 똥을 조정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습득해왔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은 즉시 끝장날 것이며, 대양은 순식간에 그를 잡아삼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더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고통이 보안 경보를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할 때이다, - 어떤 커다란 위험,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며, 이때 우리는 가능한 한 "몸을 움츠리는 것"이 좋다, 물론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반대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 폭풍이 다가올 때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전의와 행복을 느끼며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을 가져다준다! 이들은 영웅적 인간들이며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위대한 자들이다! 이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똑같은 변론이 필요하다, - 진실로 우리는 이 변론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종족을 보존하고, 진보시키는 최고의 능력이다, 비록 그들이 편안한 생활에 반대하고, 이런 종류의 행복에 대해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290쪽 이후)

허무주의 철학은 고통의 철학이다. 매순간 다그친다.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쉬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자신과의 싸움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정의와 사랑을 위한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성숙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 이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반시대Ⅳ, 34쪽)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어야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참으로 멋진 말이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크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성숙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다. 치열한 싸움으로 일관하는 삶이다.

삶의 대가는 "편안한 생활"을 반대한다. "행복에 대해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자기 삶에 대해 보여주는 존경의 표현이다. "고통 속에 지혜"가 있다. 피골이 상접한 싯다르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등 신이 된 인간들은 모두가 극단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었다. "고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을 가져다준다!" 위대한 삶까지 바라지 않는 범인 凡人들이 많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서 무엇하랴!'하면서 자신을 갈잡은 변명 속에 숨긴다. 말은 그럴싸하게 내뱉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그에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남의 눈 속에 티끌을 지적질하는 자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랴.

고통은 삶은 삶답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명약이다. 고통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의복이다. 고통은 허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훈련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통은 쾌락만큼이나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 허무주의의 가치관에 눈을 뜨자. 쾌락의 반대쪽에 고통이 있다지만 그 고통이 진정한 무게를 갖춰져야 쾌락도 무

게감 있게 느껴질 것이다. 쾌락의 지혜만큼이나 고통의 지혜도 무시하면 안 된다. 모두가 행복을 바라지만 불행을 원하는 자는 많지 않다. 모두가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삼는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만큼이나 위험한 길이 따로 없다.

인생에 제대로 된 한방을 원하는 것은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다. 대박이 쥐약이다. "모든 것을 단번에, 즉 단 한마디로 해결하는 것이 은밀한 바람이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혹은 콜럼버스의 달걀 등의 상징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제를 생각했다."(아침, 406쪽) 수수께끼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단 한 번의 해결로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반복된 훈련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풀려갈 뿐이다.

허무주의의 훈련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개인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종족 보존을 위한 최고의 능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 최고의 능력은 잠언의 초반과 후반에 각각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는 종족적 차원, 즉 '함께'가 역설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니다. 따로 그리고 함께, 그 이념들이 완전하게 균형을 잡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이다. 독서가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다시 잠언의 내용에 집중하자. "그렇지 않았다면 고통은 오래전에 소멸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고통이 소멸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분명 니체는 그런 소멸을 달갑게 여치지 않고 있다. 고통의 소멸은 고통의 지혜가 주목받지 못할 때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고통이 아픔을 준다는 것이 고통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고통이 아픔을 준 자가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체가 잘려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일 뿐이다. 야단맞아서 슬프고, 시험 점수가 나빠서 가슴이 아프고, 사랑이 깨져서 상처가 생긴다. 고통에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이런 고통의 밀물과 썰물을 맞아 쓰러지고 만다.

허무주의 철학은 고통이 올 때 항해를 준비한다. 고통이 올 때 바람을 느낀다. 역풍이 아니라 순풍처럼 느낀다.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활용하여 비상할 수 있는 순간임을 직감한다. 항해를 위한 소중한 바람임을 인식한다. "돛을 내려라!" 출항을 때가 왔다.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떠날 때는 돌아갈 다리를 끊어놓아야 한다. 미련의 싹을 잘라놓아야 한다. 해결책은 오로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계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돛이 펼쳐지면 돛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돛에 대한 지혜가 요구된다. 어떤 바람에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담한 선원인 인간은 돛을 조정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항해는 바람이 필요하다. 인생은 고통이 필요하다. 인생의 대가는 고통의 대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은 즉시 끝장날 것이며, 태양은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킬 것이다." 로렐라이 언덕에서 금빛 찬란한 여인의 환상을 보고 그녀의 오묘한 노랫소리에 정신이 팔려 현실의 급물살을 보지 못하면 암초에 좌초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위만 바라보면 아래가 위험해진다. 하늘만 바라보면 길을 찾을 수 없다. 길은 대지 위에서 찾아야 할 일이다. 대지에 충실하라!

"우리는 또한 더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건강한 작품은 예술가의 "4분의 3의 힘"(인간적II, 74쪽)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든다. 모든 긴장감은 불안의 요인이 된다. "모든 훌륭한 것들은 여유를 조금 가지고 있으며 초원의 소처럼 누워 있다."(같은 책, 75쪽) 아코디언의 비유도 기억해두자. "폭 넓게 주름 잡혀 있는 특성 덕분에"(같은 책, 99쪽)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는 아코디언의

능력을 인식해두자는 것이다. 절제의 미가 머리를 짜낸 것보다 낫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존재로서는 평온을 선사하는 음악을 창출해낼 수 없다. 그것은 터질 위기감에 휩싸여 삶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다. 팽팽하게 부풀려질수록 폭발의 위기는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그런 삶으로는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나친 긴장감,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 그 자체에 만족하면 안 된다. 삶은 그것을 넘어 설 때 삶다워지는 법이다.

알바트로스가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높이 비상하는 모습에서 즐거운 학문의 핵심을 읽어내야 한다. 여유가 있어야 아름답다. 어리석은 이성과 혼란한 말들에 걸려 넘어져 현상에 머무는 일은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자. 현상을 넘어 본질로 나아가는 시선을 갖자. 본질이 보이면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맞고 저런 말도 맞다. 그 다름이 문제될 일은 없다. 다시 한번 외워보자. “더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고?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 문장을 외우도록 하자. 4분의 3의 힘과 아코디언의 비유를 떠올리자.

“고통이 보안 경보를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할 때이다.” 고통이 닥치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자. 삶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 잠시 제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호흡의 리듬을 잃고 살다가 자주 한숨을 짓는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한다. 호흡이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삶의 모든 리듬이 엉망진창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삶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줄넘기를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0분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팔 굽혀 펴기를 해봐도 안다. 1분을 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함부로 사용한다.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보인다. 그러면 삶은 스스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어떤 커다란 위험,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며, 이때 우리는 가능한 한 ‘몸을 움츠리는 것’이 좋다.” 위기가 닥칠 때 조심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부로 조언을 하지 말자. 무책임한 낙천주의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조언은 눈물을 싹 빼놓을 정도로 잔인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삶에는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자. 칭찬에 너무 길들여지지 말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허무주의적 채찍질에 자신을 맡기자.

물론 실패의 위기가 닥쳤을 때가 한계상황임을 알면 얼마나 큰 기회가 찾아왔는지도 알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삶의 대가는 위기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다. “물론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반대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 폭풍이 다가올 때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전의와 행복을 느끼며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영웅적인 인간들”이다. 이들이 바로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호전시켜주는 천재들이다. 헤겔이 동경하는 ‘미네르바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다가오는 어둠과 함께 비상을 시작한다.”¹⁰⁾ 지혜로운 자는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진가를 보인다. 진정으로 용감한 자는 총알이 빗발칠 때 전진한다. 그에게 후퇴란 없다.

“고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을 가져다준다!” 인생의 진리다. 삶의 지혜다. 너무도 당연하여 인식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깨달음은 지극히 당연한 소리임을 잊지 말자.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해보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새겨들자. 자기와의 싸움에 치열했던 자가 민족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거듭남을 깨닫자. 허무주의 철학이 제시하는 배움의 요소들을 자기 삶 곳곳에 배치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배워야 한다.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한 웃음보가 터질 때까지.

10) ,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158쪽.

5. 생의 한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기

사람은 삶 속에 머물 때 사람답다. 인간은 인생 속에서만 인간답다. 지금과 여기!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잘 배워야 한다. 현상계가 요구하는 다양성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이성이 요구하는 차별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인 끊임없이 비교하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책에 눈길을 보낸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독서한다. 그런 짓은 삼가자. 모든 훈련은 힘들다. 이 훈련을 위해 저 훈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떨쳐버리자.

재회, - A: 내가 여전히 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너는 찾고 있는가? 지금 이 현실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너의 안식처와 별은 어디에 있는가? 네가 태양 아래 어느 곳에 몸을 눕혀야 네게 넘쳐나는 행복이 찾아오고, 네 실존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 너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것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한 걱정은 마음에서 내쫓아버려라! - B: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상의 것이다, 나는 찾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나만의 태양을 창조하고 싶다. (292쪽)

A와 B가 다시 만났다. 재회는 좋은 것이다. 다시 만나는 것보다 설레는 것은 없다. 멀리 떨어져 서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가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두 사람은 다른 사람 같지 않다. 마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등장하는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사이의 대화 같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만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인간만이 자신의 목소리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지금 이 현실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내놓는 대답 이외의 모든 대답들은 그저 단편적인 상황만을 제시할 뿐이다. 모두가 제한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답을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그 답은 다른 존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꼭 인생 50이 되어야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가? 그것도 완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요구하는 허무주의 철학의 질문이다. 질문이 분명해지면 대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철학을 공부할 때 그 철학이 내놓은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잠언을 예로 들면 A는 모두 4번의 질문을 했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해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둘째는 “너는 찾고 있는가?”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 생의 한가운데서 “너의 안식처와 별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이다. 넷째는 “네가 태양 아래 어느 곳에 몸을 눕혀야 네게 넘쳐나는 행복이 찾아오고, 네 실존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네 가지 질문은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듯하다. 서로 얹혀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자신을 찾아야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자기 자신의 별은 그때 실현되는 것이다. 그때 태양 아래 모든 것은 침대처럼 포근해질 것이고 그때 자기 자신의 실존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자신을 찾아야 한다.

B의 대답에도 지혜가 있다. A는 “너는 찾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B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나는 찾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나만의 태양을 창조하고 싶다.” 이런 대화를 실천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화, 그것이 바람직한 대화다. 오로지 창조! 삶의 철학, 생철학이 들려주는 최고의 소리다. 앞서 “오로지 창조하는 자로서만 우리는 파괴할 수 있다”(128쪽)고 했다. 자기 파괴는 자기 창조의 원인이 된다. 파괴하지 않고 창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파괴를 감당할 수 있는가? 파멸을 견딜 수 있는가? 고통은 말뿐인 현상이 아니다. 뺏속까지 건드리는 내용을 깨달아야 한다. 고통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 것이고 걷는 것조차 방해할 것이다. 생의 한가운데서 한숨을 쉬게 할 것이고 절망으로 주저앉게 할 것이다. <나의 행복>이라는 시를 다시 읽으며 도움을 청해보자. “추구하는 것에 지치게 된 이후로 나는 /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37쪽)는 말을. 허무주의가 요구하는 발견의 비법은 창조에 있었던 것이다. 나만을 위한 태양! 그것은 진정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생의 한가운데에서, - 아니다! 삶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나는 삶이 더 참되고, 더 열망할 가치가 있고, 더 비밀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 위대한 해방자가 내게 찾아온 그날 이후로! 삶이 - 의무나 저주받은 숙명이나 기만이 아니라 - 인식하는 자의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저 사상이 나를 찾아온 그날 이후로! 인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 침대나 침대로 가는 길, 오락이나 여가 활동일지 몰라도, - 내게 그것은 영웅적 감정이 춤추고 뛰어노는 위험과 승리의 세계이다. “삶은 인식의 수단”이다 - 이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인간은 용감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웃게 된다! 전쟁과 승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가 어찌 멋지게 웃고 멋지게 사는 것을 알겠는가? (293쪽 이후)

“아니다! 삶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말을 좌우명처럼 삼아보면 어떨까. ‘비가 오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비가 오면 좋은 날’로 바꿔 보듯이, 지금까지 삶이 자신을 실망만 시켰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는 “삶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해보는 것이다.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외쳐보자. 그 말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반복해보자. 그러면 이런 소리도 자기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해가 갈수록 나는 삶이 더 참되고, 더 열망할 가치가 있고, 더 비밀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추구하는 것에 지치게 된 이후로 나는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37쪽)고 말하는 정신의 고백이다. 허무주의적 발견을 기억하자. 그것은 창조였음을.

삶이 삶다워지는 순간은 창조의 순간에 있을 때뿐이다. 새롭게 변신할 때 삶은 짜릿함을 선사한다. 사랑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삶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실현되는 것이다. ‘내 안에 너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대한 해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해방된 정신”(275쪽)을 소유한 자일 뿐이다. 진정한 해방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 머무름은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선사할 뿐이다. 떠남이 미덕일 뿐이다. 늘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해방자인 것이다.

“위대한 해방자가 내게 찾아온 그날 이후로!” “저 사상이 나를 찾아온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 마침내 지금과 여기라는 삶의 현장은 “영웅적 감정이 춤추고 뛰어노는 위험과 승리의 세계”로 돌변해 있을 것이다. A와 B가 재회한 이후로 더 이상 찾는 자이기를 그만두고 창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듯이, 위대한 해방의 사상을 갖게 된 이후로 삶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흥겨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영웅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위험과 승리가 맞물려 있는 짜릿한 순간이 펼쳐진다. 기묘한 자세로 춤추는 모습에서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느낌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순간이다.

“‘삶은 인식의 수단’이다.” 이것은 허무주의 철학의 대전제가 된다. 삶이 없다면 인식도 무의미해지고 만다. 삶이 있어야 깨달음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인식이 가능해진다. 삶의 현장 속에 머무를 때 깨달음이 실현된다. 삶이 인식의 수단이라는 원칙이 설 때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용기가! “이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인간은 용감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웃게 된다!” 즐거운 웃음,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신성한 웃음이다. 그 웃음이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웃는 자의 이 왕관, 이 장미 화환의 관, 나는 이 왕관을 스스로 머리에 썼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의 웃음을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다.”(비극, 23쪽) 웃는 자가 신성한 존재다. 웃는 자가 스스로 신이 된 존재다. 웃는 자가 신이다. “전쟁과 승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가 어찌 멋지게 웃고 멋지게 사는 것을 알겠는가?” 그는 절대로 모른다. 제대로 사는 법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위대함에 속하는 것, - 커다란 고통을 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자신 안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위대한 것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고통을 견디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연약한 아내자나 노예들도 그런 일에 숙달될 수 있다, 하지만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고통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내심의 곤혹과 불안에 빠져들지 않는 것 -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이며, 위대함에 속하는 것이다. (294쪽)

늘 이런 잠언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속이는 독자가 떠오른다.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독자 말이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하기도 하는 그런 독자 말이다. 하지만 그런 독자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삶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인식된 상황이라면 겸손으로 봐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일 뿐이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서도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솔직해지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고자 한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념이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커다란 고통은 위대한 것과 맞물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힘과 의지’는 커다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인생에서 위대한 것은 하나의 형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반복으로 극복에 극복을 거듭해야 할 뿐이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없으므로.

그리고 허무주의 철학은 고통을 그저 끝까지 견디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연약한 여자뿐만 아니라 노예조차도 할 줄 안다고 말한다. 바로 여기서 염세주의 철학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삶에 등지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염세주의는 니체의 사상에 맞지가 않았던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운 것은 감사하지만 이미 처녀작에서부터 그의 사상에 거리를 두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염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 퇴폐, 변질, 지치고 허약한 본능의 기호인가? - 인도인들이 그랬듯이, 짐작건대 우리 "현대인"과 유럽인이 그렇듯이? 강함의 염세주의는 있는가? 행복과 넘쳐나는 건강함 그리고 삶의 풍요에서 유래하는 실존의 가혹함, 두려움, 사악함과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인 편향은 있는가? 혹시 지나친 풍요 자체에 대한 고통은 없는가? 자신의 힘을 견주어볼 수 있는 상대인 적敵, 즉 가치 있는 적으로서 무서운 것을 갈망하는 몹시 날카로운 눈초리의 실험적 용기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적은 있는가? (비극, 10쪽)

약한 염세주의는 싫다. 삶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 자세가 싫은 것이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자세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운명을 창조하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좋은 추억을 쌓고 싶으면 모험을 해야 한다. 사랑은 선을 넘어야 가능하다. 강한 염세주의는 없을까? 찾는 데 지쳤다면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에서 발견은 창조였음을 영원히 잊지 말자. 강함의 염세주의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허무주의인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고통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내심의 곤혹과 불안에 빠져들지 않는 것 -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이며, 위대함에 속하는 것이다." 프로메테우스의 눈빛은 허무주의적이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다. 인생이 고해苦海라 해도 그 고통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눈물의 바다다. 프로메테우스를 처녀작 《비극의 탄생》의 표지 모델로 삼았을 때 니체는 이미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고통은 인간을 인간답게 또 삶을 삶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6. 배움의 대상으로서 여유와 사랑

현대인은 노동자가 대세다. 노동이 현대의 이슈다. 노동이 자본과 맞물려 있다. 그것이 현대의 이념이다. 또 현대의 삶은 도시생활로 대변된다. 도시에서의 삶은 일사분란하다.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자기 몫을 행한다. 일상은 너무나도 정상적이다.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다. 냉정하고 차갑다.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는다. 무리를 짓고 이동하는 모습 속에서는 미소가 보이지 않는다. 손에는 작은 기계하나 들려 있고 손가락은 끊임없이 화면을 향한다. 잠시라도 멈추면 기계는 작동을 멈추니까.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다. 주변의 소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반시대적 고찰》에서 니체는 현대인을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유용한 사람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성숙하기 전에 학문 공장에서 일하면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학문은 너무 일찍 이 공장에서 이용되었던 노예들처럼 파멸할 것이다."

(반시대적, 350쪽) 현대와 현대인 그리고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놀랍다. 세기말에 이미 니체는 현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니체가 말이다. 근대를 종식시키고 현대를 시작하면서 이미 현대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생철학자 니체가 마련해놓은 밥상은 참으로 먹을 것이 많다. 하지만 모두가 쉽게 씹을 수 없고 소화해내기도 힘든 것들이다. 이성은 공장과 같은 학교에서 정답을 찾는데 눈물겹도록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성으로는 결코 자기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찾을 수 없다.

한가와 여유, - 미국인들이 금을 탐하는 태도에서는 인디언 같은, 인디언의 피에 고유한 야성이 감지된다, 숨 가쁘게 서두르는 그들의 노동 - 신세계의 고유한 약속 - 은 늙은 유럽에도 이미 감염되어, 이곳을 야만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기이한 정신 결여증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휴식을 부끄러워하며, 오랜 사색에 대해서는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까지 한다,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손에 들고 있고, 점심을 먹으면서 주식 신문을 본다, - 언젠가 무언가를 "농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느니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원칙이 모든 교양과 고상한 취미를 파괴하고 있다, 눈에 띄는 조급한 노동에 모든 형식들이 몰락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식 자체에 대한 감정, 운동의 선율에 대한 눈과 귀가 몰락을 겪고 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여유를 위한 시간과 능력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득을 좇는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꾸며내고, 계락을 짜내고, 남을 앞지르는 일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신을 모두 소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오늘날의 미덕이다, 그리하여 솔직함을 위해 허용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사람들은 피로하여 자신을 "멋대로 내버려두고" 삶을 뿐만 아니라, 길고 넓고 여섯프게 몸을 뺀고 삶을 뿐이다, (297쪽 이후)

잔소리로 들릴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세기말이라는 시대로 되돌아가서 보면 참으로 놀랍다. 시대인식이 남다르다. 선구자처럼 보인다. 도시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니체는 이미 그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던 것이다. 모두가 변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리고 적응해야 한다고 소리를 드높이고 있을 때 니체는 이미 그 변화에 등을 돌리고 있고 적응보다는 거부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미 현상을 넘어 본질까지 꿰뚫어본 그는 그 어떤 원칙이나 미덕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현대인의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하느니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정말 그렇다.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 집안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편하다.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기 식구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제발 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애원을 한다.

현대인의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한다. 빨리! 더 빨리! 이것은 올림픽 경기의 공식적인 모토를 닮아 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citius, altius, fortius"¹¹⁾)라는 명언 말이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살벌한 생존게임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다. 경쟁에서 밀리면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마음으로 일상에 임한다. 경쟁에 강한 사람이 권력을 꿰찬다. 경쟁에 약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신줄을 놓고 산다고 말할까. 그렇다. 현대인의 정신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듯한데 그 생각은 이미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여주는 화면 터치로 혹은 화면 바라보기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흘러넘치는 정보들에 세뇌를 당해 있다고 말해도 된다. 무슨 얘기만 하면 유행을 거들먹거리며 안다고 으쓱댄다. 대세가 뭐라느니 하면서 자신이 그 물을 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초

11) https://de.wikipedia.org/wiki/Olympische_Spiele

라하기 짝이 없다. 내용 없는 화려한 소리는 가스로 충만한 네온사인 불빛 같다.

“숨가쁘게 서두르는” 생각과 행동 속에서 현대인은 살아간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 뭐가 옳은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노동에 내몰린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 “노동 - 신세계의 고유한 악습 - 은 늙은 유럽에도 이미 감염되어 이곳을 야만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기이한 정신 결여증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노동은 악습이다. 이 악습이 미국이라는 신세계에서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하며 유럽까지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오늘날은 이미 세계가 이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현대화가 미국화인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물결에 앞장서면서 금지를 가지는 나라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그 물의 속성까지 잊고 사는 듯하다.

기이한 정신 결여증! ‘정신없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제 사람들은 휴식을 부끄러워하며, 오랜 사색에 대해서는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까지 한다.” 철학 공부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아니 그런 여유를 부릴 능력이 아예 없다. 눈만 뜨면 기업이 만든 기계에 손을 뻗는다. 귀만 열면 기업윤리에 정신을 집중시킨다. ‘모르는 게 죄’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현대에 되살아나는 듯하다.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금지를 갖고 사는 듯하다. 하지만 니체의 눈에는 아는 게 죄처럼 보일 뿐이다. 현대인이 알고 있다는 것의 내용들 속에는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은 결여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시계를 손에 들고 있고, 점심을 먹으면서 주식 신물을 본다.” 이것을 하면서 저것을 한다. 시계와 신문! 현대의 상징물일 뿐이다. 요즘은 말로 하면 컴퓨터와 핸드폰이라고 할까. 친구를 앞에 두고서도 시선과 정신은 이곳으로 가 있다. 이 기계들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기계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기계에게서 위로를 얻고 동정을 느낀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눈과 귀가 몰락을 겪고 있다.” 눈과 귀가 몰락하고 있다. 눈을 뜨고서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놓고서도 진실을 듣지 못한다. 출력이 몇 와트도 되지 않은 기계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적응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소리와 그 리듬에 습관처럼 움직이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솔직함을 위해 허용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사람들은 피로하여 자신을 ‘멋대로 내버려두고’ 싶을 뿐만 아니라, 길고 넓게 어설픈게 몸을 뻗고 싶을 뿐이다.” 니체의 비판은 계속된다. 잔소리 같아서 여기서 인용을 중단했다. 관심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현대인은 솔직할 시간조차 없다. 참담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조차 기업윤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 소원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연결되고, 희망도 기업체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동이라는 신세계의 고유한 악습은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모두가 기이한 정신의 결여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정신병을 치료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다. 모두가 그러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솔직해야 할 시간이 닥치면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낀다. 그냥 자기 “‘멋대로 내버려두고’ 싶을 뿐만 아니라, 길고 넓게 어설픈게 몸을 뻗고 싶을 뿐이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피곤해서 대화할 여력이 없다.

마비되느니 귀머거리가 되라, - 과거에 사람들은 평판을 얻으려 했다, 오늘날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 결과로 좋은 목청을 지닌 사람도 너무 소리를 질러 목이 쉬게 되며, 좋은 상품도 원 목소리로 팔아야 한다, 시장에서 소리를 질러 목이 쉬지 않고는 이제 어떤 천재적 재능도 소용이 없다, - 이는 물론 사상가를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시대다: 사상가는

두 개의 소란 사이에서 자신의 고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하며, 고요 속에 있는 한 귀머거리 행세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물론 조바심과 두통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300쪽)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가. 내용은 이제 중한 것 같지도 않다. 매스컴에서는 엄청 싸워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뒤편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나쁜 소리와 좋은 소리가 모두 목이 쉴 정도로 외쳐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시끄럽기만 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현상이라고 핑계를 대고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해오면 당황하기 일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니체의 글과 함께 현대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면 다행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이라도 발견했다면 큰 수확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잔소리로 들리고 있다면 아직 몰락한 눈과 귀를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는 “물론 사상가를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시대다”라는 평가 앞에서 진심어린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운운한지도 이제 수십 년이 되어가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이 말이었다. 모두가 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요즘 세상에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치’라고 말하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기 여념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니체의 철학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가 제시하는 처방에 귀를 기울여보자.

“사상가는 두 개의 소란 사이에서 자신의 고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하며, 고요 속에 있는 한 귀머거리 행세를 해야 한다.” 고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사이에서 고요를 찾아라! 종처럼 속을 비우라. 눈 닫고 귀 닫고 사물을 직접 보고 들으라. 눈을 감으며 눈을 뜨라. 귀를 막으며 귀를 열어라. 마야의 베일이 벗겨질 때 마침내 사물의 본질이 경험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몰락의 위기는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물론 조바심과 두통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배우지 못하면 위험하다. 현대인의 위기다. 고요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음악의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선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와 선율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소리를 골라내서 듣고, 구분하고, 독자적인 생명으로 분리하고, 경계를 짓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견뎌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생소할지라도 그 눈길과 표현을 참아내고, 그것이 지닌 기이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그리하여 결국 그것에 친숙해지고, 기대를 품고, 그것이 없으면 아쉬워하게 되리라고 예감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제 음악은 자신의 힘과 마력을 계속해서 발휘하여 우리가 자신에게 굴복당해 겸손해지고 매료된 연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것만을 그리고 또 그것만을 원하며, 다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여기기 전에는 끝을 맺지 않는다, - 하지만 음악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배워왔다, 결국 우리는 생소한 것에 대해 선의와 인내, 공정함과 온후함을 베풀 보상을 받게 된다, 생소한 것이 천천히 자신의 베일을 벗고 말할 수 없이 새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이것이 우리의 친절에 대해 그것이 보내는 감사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길을 거쳐 사랑을 배웠을 것이다, 그 외의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도 배워야만

한다. (302쪽 이후)

고요를 들려주는 소리를 찾아다녀야 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고요의 소리를 추구해야 한다. 논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밖으로만 향하는 이성만을 강화할 뿐이다. 그런 이성으로는 그저 자기 자신을 창문 앞에 세워놓는 꼴이 되고 만다. 본다고 보지만 보이는 것은 현상뿐이다. 이성은 계산능력이라 했다. 이성에는 논리와 원리가 중요하지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이성은 그저 달과 같다. 비춰오는 빛만을 되돌려줄 뿐이다.

이제 다른 능력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음악이다. 그것도 고요를 들려주는 음악을 찾아야 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고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음악이 있다. 개인의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음악은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그런 음악으로 들린다. 시작은 깊은 저음으로 남성적이지만 지속하며 이끌어가는 소리는 가녀린 음으로 여성적이다. 그런 음악에서 “전체적인 주제와 선율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다음 “소리를 골라내서 듣고, 구분하고, 독자적인 생명으로 분리하고, 경계를 짓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 악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으로 이런 것을 연습하면 더욱 유익하다. 드럼소리, 기타소리, 피아노소리 등을 구분하다 보면 ‘음악이 보인다’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다.

이 경지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견뎌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견뎌내야 한다. 오랫동안 참아내야 한다. 반복이라 말해도 좋다. 듣고 또 들으며 그 소리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견뎌내야 한다. 아무리 거북한 낯선 소리라 해도 참고 들어야 한다. 배우고 싶으면 일단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듣지 않고 배운다는 것은 모순이다. 아무리 기이한 소리라 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훈련소의 조교가 하는 소리도 그런 것이다. 그가 하는 반말이 귀에 거슬리면 훈련소를 퇴소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서 배울 것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면 모든 소리를 참고 견뎌야 한다. 삶에는 퇴소가 없다. 견뎌야 평정이 찾아올 것이다.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음악에서 이런 것을 배워냈다면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배워왔다.” 사랑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 사랑을 해보아야 한다. 사랑을 부끄럽게 생각해왔다면 사랑을 당당하게 여겨보아야 한다. 그것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음악을 듣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가 긍정적이다. 그에게 삶은 희망으로 가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물구나무서고 춤추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도 배워야만 한다.” 사랑도 배움의 목록 중에 하나로 반드시 적어놓도록 하자.

사랑 중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제일 힘들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먼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303쪽)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 자기 자신을 버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손목을 꼭 잡아주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학문의 전부다”(아침, 62쪽)라는 소리도 명심하자.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 자기 자신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303쪽) 그 몇 안 되는 소수 중에 자기 자신이 속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한다! 새롭고, 일회적이고, 비교 불가능하고, 자기

스스로가 입법자이고,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 (307쪽)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노동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는 많지 않다. 기초학문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돈 되는 학문만을 열망하는 한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이 꿈꾸는 이상형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누가 초인일까? 누가 위버멘쉬일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입법자이고,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는 인간이 바로 그다.

7. 비극의 시작과 인생의 무게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 시작과 함께 비극을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인생이 비극이다. 삶이 부여하는 짐은 엄청나다. 존재의 무게는 삶을 짓누른다.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가 주인공인 자신의 삶을 견뎌내야 한다. 비극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다가가서 비극을 감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려 해야 한다. "그들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이 끝나고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들의 교묘한 능력도 대개 끝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삶의 시인이 되기를 원한다." (276쪽)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을 챙기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인식으로 이끄는 것은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가장 사소한 것 하나가 인식으로 이끌기도 한다. 비극? 삶이 비극이라 해도 상관없다. 비극적인 삶 속에서 인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할 일을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비극이 시작되다 Incipit tragoedia, -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나이 서른이 되던 해에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면서 보내기를 십 년,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다, -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너 위대한 천체여! 네가 비추어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의 행복이겠느냐! 너는 지난 십 년 동안 여기 내 동굴을 찾아 올라와 비추어주었다, 내가, 그리고 나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더라면 너는 필경 너의 빛과 그 빛의 여정에 지쳐 있으리라, 우리는 아침마다 너를 기다렸고, 너의 그 넘치는 풍요를 받아들이고는 그에 감사하여 너를 축복해왔다, 보라! 나는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이 그러하듯 나의 지혜에 싫증이 나 있다, 이제는 그 지혜를 갈구하여 내밀 손들이 있어야겠다, 나는 베풀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롭다는 자들이 새삼스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새삼스레 자신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 나는 저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네가 저녁마다 바다 저편으로 떨어져 하계에 빛을 가져다줄 때 그렇게 하듯, 너 차고 넘치는 천체여! - 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저 아래로 내려가려 하거니와, 나 또한 그들이 하는 말대로 너처럼 몰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없이 큰 행복조차도 시샘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너, 조용한 눈동자여, 나를 축복하라! 바야흐로 넘쳐흐르는 이 잔을 축복하라, 이 잔으로부터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넘치도록, 그리하여 온 누리에 너의 환희를 비추어주도록! 보라!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갈망하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사람이 되기

를 갈망하노라.” - 이렇게 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315쪽 이후)

차라투스트라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는 말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우스트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는 말에 집중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전을 뒤척이며 차라투스트라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정보가 텍스트 이해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 보자. 니체가 들려주는 소리에 자신을 맡겨보자. 여행을 할 때 안내자를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독서 여행에 임해보자. 그러면서 니체가 어떤 길목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추궁해보자.

잠언의 시작과 끝이 맞물리고 있다. 처음은 라틴어로 “인시피트 트라고에디아^{Incipit tragoedia}”라고 했다. 번역하면 말 그대로 “비극이 시작되다”이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끝에 도달하여 시작을 알린다. 형식적으로 보면 돌고 도는 느낌이 든다. 일명 영원회귀의 사상이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시작한 것을 견뎌내고 또 견디다 보면 끝이 보인다.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시간은 흘러간다.

시작과 끝의 내용은 비극과 몰락으로 채워져 있다. 비극이 시작하고 몰락이 시작한다. 또 하루가 시작한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고 싶은가? 이 몰락하는 삶을 그리도 살고 싶은가? 왜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인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삶에 미련이 남아서? 수많은 말들이 비극을 만들어낸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못처럼 인생은 어정쩡하게 박혀 있는 듯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면서도 실상은 죽지도 못한다. 살고 싶어 아등바등하면서도 제대로 살지도 못한다. 이것이 진정 비극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고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가 되어 몰락의 길을 걷고자 한다. 태양이 몰락하듯이 그렇게 몰락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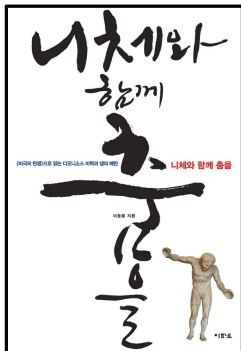
태양처럼 몰락하라!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행동이다. 빛을 잃고 삶에 허덕이는 하계에 빛을 선사해주려 가는 그 태양처럼 몰락하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몰락해야 한다면 기꺼이 몰락하라.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지상명령이다. 그것이 니체 사상이 품은 정언명법이다. 몰락하고 싶으면 태양처럼 몰락해야 한다. 자기 삶에 치여서 몰락하는 꼴을 자기 인생에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반복이라는 짐이다.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경우에 최대의 중량으로 그대의 행위 위에 얹힐 것이다!”(315쪽)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제도 살고 그제도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새로움이 없는 하루를 또 버틸 수 있겠는가? 권태의 태풍 앞에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돛대가 될 수 있겠는가? 그 태풍에 찢기지 않는 돛이 될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다면 항해는 멋진 모험이 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1:2)라는 말을 듣고도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희망의 바다로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곳,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종말을 가리키는 곳에서 희망을 걸었다”(비극, 20쪽)고 말하는 니체처럼 살 수 있겠는가? 차라투스트라처럼 힘겹게 모은 꿈을 그것을 “갈구하여 내민 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노라.” 이 말을 자신의 목소리로 내뱉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신이 된 자가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인간을 찾아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 하늘 위에서 군림하며 ‘여기 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외치지

않고 스스로 몰락할 수 있겠는가? “빛 속에 있는 태양의 고독”(이 사람, 435쪽)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 수 있겠는가?

이 “비극이 시작되다”라는 잠언은 《즐거운 학문》 다음에 완성하게 되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장을 장식하게 된다. 니체가 스스로 인류에게 바친 최고의 선물이라고 선언했던 작품의 서곡이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이 사람, 326쪽) 그토록 금지에 찬 작품의 첫 페이지에 실은 글이다. 태양의 몰락이 비극의 시작이고, 그 몰락의 시작이 허무주의의 춤사위를 알린다. “차라투스트라는 춤추는 자”(이 사람, 431쪽)이기 때문이다.



“삶은 기회다”(《니체와 함께 춤을》, 본문, 518쪽) 춤을 출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삶이다.

사람을 춤추게 하는 철학!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모든 것을 잊고 멧과 흥이 넘치는 춤을 추게 해준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철학!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양심의 가책 없이 해맑게 웃게 해준다. 웃음이 신성하다고 가르치는 철학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허무주의라는 신성한 제단에 바쳐져야 할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춤과 웃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살 만하게 만들어주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온갖 것을 신성하게 간주한다. 니체도 신을 믿는다. 그가 믿는 신은 춤추는 신이다.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차라, 65쪽) 허무주의라는 무대 위에는 오로지 춤추는 신만이 주인공일 뿐이다. 육체를 최고의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자가 보여주는 최고의 예술 형식, 그것이 보여주는 삶의 최고 경지,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태양을 닮아 있다. 세상을 밝혀주면서도 스스로는 태양처럼 고독하다. 늘 빛을 선사하기 위해 어둠을 찾아 몰락하는 자, 그 자가 차라투스트라이기 때문이다. “한없이 큰 행복조차도 시샘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너, 조용한 눈동자여, 나를 축복하라!” 태양과 대화를 나누는 차라투스트라. 그가 쏟아내는 말들이 허무주의 철학을 완성한다. 빛의 소리다. 무를 기다리고 무를 견뎌낸 결과 탄생한 이념이다. 니체가 곧 차라투스트라이고, 차라투스트라가 곧 니체이다.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었다 -”(415쪽) 둘은 무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무는 모든 비극을 감당하게 해준다. 감당이 될 때 모든 비극은 존재의 짐을 벗어 던지고 춤과 웃음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을 연출해낸다.

삶은 누가 뭐라 해도 기회다. 춤출 수 있는 기회다. 웃을 수 있는 기회다. 산다는 것의 의미도 춤과 웃음 속에서 구현될 뿐이다. 지혜는 모아져야 하고 그 모아진 지혜는 춤과 웃음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인생을 즐길 수만 있다면 평생을 춤추며 살 수 있다. 인생을 즐길 수만 있다면 평생을 웃으며 살 수 있다. 공부가 제일 재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즐거운 학문’은 삶을 위한 학문이다. 삶이 아닌 것은 즐겁지 않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네 운명을 사랑하라! 허무주의 철학의 정언명법이다. 니체가 들려주는 생철학의 지상명령이다. “새해에”에 품었던 다짐을 다시 기억하자.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려다.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려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255쪽) 나는 긍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을 배우는 이유다. 그것이 공부하는 이유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물을 좋게 보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과제다.